

광주 광산구, 치매 전담 요양시설 건립

2022년 준공 목표 국·시비 76억여원 확보
민간건물 증·개축 140여명 치매환자 수용

광주 광산구가 공립 치매 전담 요양시설을 건립한다. 광산구는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치매'를 목표로 치매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치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공립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치매 국가 책임제'에 부응하며 국가 지원을 이끌어냈다. 국·시비 76억여원을 확보한 광산구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계

획 수립, 부지·건물 매입, 설계용역 착수 등 치매 전담 요양시설 건립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광산구는 민간 건물을 증·개축해 치매 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690㎡ 규모로 치매 전담 노인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 시설 각 1개소를 설치해 140여명의 치매환자들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그동안 치매는 환자와 그 가족의 문제로만 여



겨졌지만, 광산구는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할 문제로 바라본다”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 들어설 광산구 치매 전문 요양시설이 환자 치료는 물론이고, 환자 가족의 안심과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공공 영역에서 치매를 책임지는 모델을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임형택기자



강진군, 강진노인대학 개강

6개 프로그램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운영

강진군노인회에서 운영 중인 강진노인대학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미뤄 온 학사운영을 재개했다. 강진노인대학은 지난 1월에 개강했으나 코로나19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르신들의 감염을 염려해 3월부터 휴강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방역 등 사전준비를 일주일간 철저히 마친 강진노인

대학은 2020년 첫 수업인 요가 프로그램을 지난 18일 시작했다. 요가 프로그램 외에도 화요일·금요일 주 2회, 노래교실·사물놀이·국악 등 6개 프로그램을 30~50명 인원을 제한해 운영한다. 작전노인대학 및 도암노인대학도 사전방역을 통해 개강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조만간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주시, 국내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센터 설치

주말·휴일 돌봄 내달 시범실시...내년부터 365일 운영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적인 영역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본다. 이용섭 시장은 20일 열린 제 29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조석호 의원의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답변하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 시장은 “광주시는 지난 6월 3일 광주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발달장애인들이 지역공동체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발달장애인부모연대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연대로부터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6가지를 제안 받고 정책 발굴 TF를 꾸려 집중

검토한 끝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등 5대 분야 10대 과제가 포함된 광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1대 1로 돌볼 수 있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센터를 설치, 낮시간 활동 지원(챌린지2 사업)은 물론이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전담 인력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주거 모델 레벨3을 새롭게 도입해 24시간 행동치료와 돌봄을 병행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또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이 병원 입원, 애경사 등의 긴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센터도 운영해 부모들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동취재본부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이 주말과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아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는 돌봄 부담이 큰 점을 감안,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말·휴일 돌봄지원을 다음 달부터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는 365일 돌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발달장애인 전환지원팀을 신설, 광주지역 8000여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권리 향상과 지원을 전담토록 했다. 이 시장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그 고통과 책임을 본인과 가족에게만 지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더 이상은 단 한 분의 시민도 억울하게 가지 않도록,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 차별없이 동등한 삶을 사는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화순특수교육지원센터 '즐거운 가족 나들이' 장애학생 가족 가을소풍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식)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7일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가족이 함께 가는 가을소풍'을 실시하였다.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실시되는 '가족이 함께 가는 가을소풍'은 17일, 24일 2일간 관내 유·초 특수학급학생 10가족을 대상으로 화순 허브파크에서 허브 오일 및 허브 소금 만들기, 주변 숲길 산책하기 등 체험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번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 안OO는 “이번 가을소풍을 통해 가족들이 자연 속에서 더욱 친밀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화순교육지원청 최원식 교육장은 “가족 간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연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무안군, 군민 정신건강 직접 챙긴다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정신건강 홍보관 운영

무안군은 최근 롯데아울렛 남약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증, 스트레스 등 코로나 불투를 겪고 있는 군민의 심리방역을 위하여 실시했으며 발열체크와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진행됐다. 무안=이기성기자

이날 보건소 직원들은 정신건강 복지센터 사업 홍보,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과 함께 군민들의 우울, 스트레스, 자살 등 다양한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을 공유했다. 특히 일대일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우울정도를 진단하였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무안=이기성기자

사람이 비우면 자연은 채웁니다

사람의 손길이 멈춘 자리에 나비가 날아오고 새들이 지저귀니.
사람의 발길이 잦아든 자리에 푸른 열매가 자라고 붉은 꽃이 필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푸른 세상을 꿈꿉니다.